인천YMCA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행정사무

(1) 성장과정

저의 부모님께서는 일평생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제 생일마다 보육원에 소액을 기부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매주 일요일 인근 양로원으로 식사 봉사를 나가고 계십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즐거워 하시는 분들을 보며 말로 표현 못 할 뿌듯함을 느꼈고, 보람과 가치를 느꼈으며, 제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배풂, 헌신, 봉사'는 제 인생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생관을 최고의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저 역시 그 뒤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찾아가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돈과 명예를 좇지 않고 제가 평생 즐거이, 기꺼이, 오롯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2) 장점 및 단점

제 장점은 강한 책임감과 근면성실함 입니다. 오랜 기간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단순히 용돈벌이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매장이 동종 업계 최고의 서비스와 매출을 자랑하는 매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 나를 고용해준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일 이상의 몫을 해내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와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습니다. 모든 일에 개근하며, 지각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 납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일은 쉬는 법은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출근하는 성격입니다. 두번째는 사교성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워 하지 않고 밝은 분위기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격증 취득에 푹 빠져서 한국사, 한국어. 시사상식 공부에 빠졌습니다. YWCA를 방문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라는 여성 분들께 제 공부 노하우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단점은 일처리를 신속히, 완벽하게 하길 추구하다보니 의욕이 과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무에 관해서 초보자일 경우 빨리 배워 경력자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싶다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갖 되 느리게는 아닌, 의욕이 과하지 않 되 나태하지도 않은 적정선을 찾아 신속, 정확, 성실의 삼박자를 두루 갖추겠습니다.

(3) 경력 소개

대학생 때 동아리 SFC와 YWCA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기독교 봉사활동 동아리 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소아암 어린이 모금 운동, 양로원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해(2014년) 초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한자교육, 독서논술교육을 지도하며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입을 앞 둔 중학교 3학년 때에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한 동급생을 위해 방과 후에 한 동급생을 방과후 1:1 집중과외을 해 준 경험도 있을 만큼 약자를 보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결코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서만은 아닙니다. 봉사는 제가 즐겁기에, 기꺼이 행하는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4) 지원동기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란 책입니다. 20세기 가부장제와 성적 불평등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고정된 소득과 자기만의 방'을 통해 여성도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희생과 노력으로 현대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암리에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기혼여성을 기피하며, 출산과 동시에 사퇴하길 원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소득, 고지위를 갖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가정 내에서 여성은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힘든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연스레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성별, 아내, 엄마라는 족쇄에 얽매여 사회, 경제 활동에서 멀어지는 세태를 보면서 페미니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나약한 모습을 떨쳐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인천 YWCA에 입사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인천 YWCA에 입사하여 많은 여성들과 공감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값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